



# 입학사정관제 확대 혼란 키운다

올해 입시부터 입학사정관제가 대폭 확대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입기내 입학사정관제 100% 확대' 발언까지 겹치면서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립없이 면담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놓고 '성적이 나빠도 진학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마저 퍼지면서 중학교 재학생까지 동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공부도 잘하고, 잠재력이나 소질도 뛰어난 '만능학생'이 돼야만 소위 'SKY(서울·고려·연세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일각에선 주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선호하는 현실속에서 오히려 수도권 명문고와 특목고 등 특장고

교 학생을 우대하는 제도로 변질돼 광주 등 지역 학생의 명문대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현실=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되는 학생수는 47개 대학 2만690명으로, 지난해(4천555명)보다 450% 이상 늘었다. 이러한 입학사

정관제의 걸모습은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이 우선되는 듯 하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학들이 내세우는 '조건'은 수능보다 훨씬 엄격하다.

고려대와 연세대를 살펴봐도 서류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 영역 증명서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내야 하고, 수능도 2~3개 영역에서

최소 2등급 안에 들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놓은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이해'라는 지침서도 "학업에 충실해야 하며, 입학사정관제가 '성적과 상관없는 전형'이라는 정보는 틀린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제진 진학사 입시분석실 선임 연구원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잠재력이 높더라도, 학생부 성적이 낮은 학생은 꺼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조언했다.

▲특목고 열풍 등 부작용 우려도 =교육전문가들은 입학사정관들이 대규모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선 실력과 배경(특목고 등)을 갖춘 학생을 선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자사고나 특목고를 우대하는 '고교등급제'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중학교 때부터 특목고를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서 사교육의 열풍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입학사

정관제의 컨설팅 10번에 350만원씩 받는 맞춤형 학원이 나오는 등 사교육의 과열화 조짐이 감지하고 있다.

정석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입학사정관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특목고나 명문고 출신, 고득점 재수생 등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광주 등 비 수도권 교생의 명문대 진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사교육도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정관제 확대는 시기상조 =교육전문가와 일선 고교 교사들은 이런 우려를 없애려면 양적 확대보다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의 재교육과 양성에 힘쓰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정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한 고교 진학실장은 "입학사정관제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며,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올 47개 대 2만명 선발·교과부 "매년 대폭 늘릴 것" 수능보다 훨씬 엄격... '만능학생' 돼야 명문대 진학 특목고 우대 변질 우려... 광주·전남 학생들엔 불리



심장마비로 타계한 조오련씨의 빈소에 5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서정복(오른쪽) 전남체육회 사무처장이 해남 국제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영전에 헌화하고 있다. /해남=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60대 체력으로 대한해협 횡단

## '나이는 숫자에 불과' 증명하겠다"

광주일보 입수 조오련 '30년만의 재도전' 계획서

"2010년 대한해협 횡단 재도전을 성공시켜 한국인의 60대 체력을 보여 줌으로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겠습니다. '수영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 바랍니다."

지난 4일 58세를 일기로 타계한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는 주위의 관심과 도움을 절실히 원했다. 고인에 대한 해협 재횡단을 위해 각처에 지원을 호소하는 '도전 계획서'를 보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또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그의 위대한 도전은 영원히 미완으로 남게됐다.

5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30년만의 재도전'이라는 계획서에는 고인의 대한해협 횡단에 대한 의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A4용지 12매 분량으로 된 계획서에는 대한해협 횡단의 의미와 훈련 일정, 소요 예산, 장비, 인력 계획 등이 빼곡히 담겨 있다. 또 맨 마지막 장에는 지난 80년 횡단 성공 당시 찍은 사진을 첨부해 재도전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인은 계획서에서 "1980년 부산에서 대마도를 13시간16분 만에 횡단한 게 어느덧 30년이 흘렀다"며 "2010년 환강과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을 맞아 또다시 대마도를 다녀올까 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또 "80년 횡단 당시에는 부산 대마도에서 출발했으나, 이번에는 따뜻한 쿠로시오 난류를 타기 위해 거제도 장승포에서 출발할 것"이라며 치밀하게 도전을 준비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13시간 16분 만에 대한해협을 횡단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 도전에는 16~18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인은 17개월(지난 4월~내년 8월)에 걸친 훈련과 장비 제작 및 구입에 모두 8천8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1개월 단위로 식대와 숙박비, 차량유지비, 예비비 등 항목을 나눠 구체적으로 산정한 예산을 계획서에 첨부했다.

부인 이상란(43)씨는 "(고인) 후원 요청을 담은 도전계획서 등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진흥공단, 전남

도청, 해남군청 등 관계 기관과 언론, 스포츠계, 기업 등 많은 곳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처남 이성배(52)씨는 "고인이 언론을 통해 대한해협을 또 횡단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부터는 훈련보다 오히려 후원을 요청하는데 더 공을 들이고, 힘써주었다"며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에는 후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해남=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찰, 장성군청 압수수색

장성경찰은 지난 4일 장성군청 총무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일각에서 "군청 공무원이 땅을 팔아 승진했다"는 등의 인사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유람선 기관고장 1시간 해상 표류



○여수 해상에서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기관고장으로 멈춰서 표류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

○5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40분께 여주시 수정동 오동도 부근 해상에서 관광객 170명을 태운 다도해 유람선이 기관고장으로 엔진작동이 정지돼 1시간 동안 표류했다는 것.

○해경은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 승객 170명 중 90명을 경비정으로 옮겨 실은 뒤 육지로 이동했으며 나머지 80명은 수리를 마친 사고 유람선을 타고 오토도로 회항.

○해경은 이날 사고가 여객선 스크루(screw)에 이물질이 감겨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 조오련 빈소 조문행렬... 오늘 가족장으로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지난 4일 심장마비로 타계한 조오련씨의 빈소에는 각계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해남 국제장례식장에는 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등 정치인들과 대한체육회 및 수영연맹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

리, 김형오 국회의장, 박태환 선수 등 100여명은 조화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고인의 장례는 6일 오전 가족장으로 엄수되며, 해남을 학동리 고인의 생가 주변에서 노제를 치를 예정이다. 또 시신은 고인의 뜻에 따라 해남을 계곡면 법곡리 자택 뒷산에 안장된다.

또 이날 국과수의 부검결과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인 것

으로 밝혀졌다. 해남경찰은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에서 조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심근경색, 심장동맥의 경화 및 석회화, 심비대증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남 부인 이상란씨의 음독과 관련, "이씨가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남편이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일부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해남=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순탄광서 또 사고

광차 치여 40대 사망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화순군 동면 북막리 화순탄광소 동광에서 신모(43)씨가 석탄을 나르는 무동력 광차(鑛車)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씨는 2대의 광차를 연결하려던 중 내리막 경을 달리던 광차가 앞에서 있던 10량짜리를 추돌하면서 탈선한 광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조승수기자 css@

사:공:회:로:인:는:주:장:이:중:이:려:는:사:실:이:로:부:담:하:것:습:니:다

2009년 8월 6일 목요일

광주일보

제18438호

7874

나원침

김종두

광주일보

2009년 8월 6일 목요일

제18438호

7874

나원침

김종두